결혼/시집/친정[개깊은빡침]

**남편의 XX파트너 내연녀를 알아버렸습니다..**

글이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전남편은 여전히 얼굴 빳빳히 쳐들고 회사 잘 다니고 있다네요ㅡㅡ

=============================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큰 맘먹고 올립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 약 2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1년쯤 연애했을 때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했고 남편은 결혼생각이 없다하여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두석달 지나서 남편이 저를 잊을 수 없다고 찾아와 다시 만났고 다시 만난지 1년이 안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각자의 집으로 헤어져서 주말부부를 했어요.

남편은 신혼집에서, 저는 기숙사에서 반년 살다가 9

평짜리 오피스텔을 얻어 살았어요.

저는 금요일에 퇴근하고 신혼집으로 갔고 일요일 밤에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왔죠.

이렇게 2년 반을 지냈더니, 사이가 연애때보다 더 소원해지는걸 느꼈고 이렇게 계속 지낼수 없다고 합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내릴즈음,

작년 10월 남편이 오창 G 제약회사 (녹색)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저도 함께 근처 회사로 이직하여 살림을 합쳤어요.

주말부부일때는 그냥 그런갑다 했었는데, 같이 살면서 보니 남편이 한시도 폰을 놓지 않고 계속 들고 다니더라구요.

거실에서 잠깐 방에 갔다오는데도 폰을 두고가면 바로 찾으러와서 들고 갔어요.

판타지소설에 빠져지내는데, 전 소설보느라 그런갑다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5월 연휴때 전 친구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됐고, 남편은 딱히 할 일이 없다며 서울 시댁에 가있겠다고 했죠.

제가 제주도에 있는 3박 4일 동안 첫날에 잘 도착했냐는 연락오고 마지막 돌아가는 날에 언제 도착하냐는 연락만 오고 여행 내내 연락 한번 없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남편한테 그동안 뭐했냐고 물어보니 친구도 안만나고 내내 집에만 있었대요. 제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 짐도 같이 정리하는데 옷을 입었더라구요? 내내 집에만 있었다고 했는데.. 집에도 츄리닝 입고 왔는데.. 그래서 물어보니 집 앞에 잠깐 나갔다왔대요. 뭔가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 생일날에 남편이 발리 밸트와 떡케익을 들고 왔어요. 누구한테 받았냐고 하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업체 형한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형을 저도 아는데, 명절은 챙겨줬어도 생일을 챙겨준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상해서 떡케익 가게를 찾아보니 청주였어요. 그 형은 천안에 사는데.. 생일 챙겨주려고 청주에 있는 떡케익가게를 알아봐서 적어도 2~3일 전에 주문을 했다.. 그것도 남자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너무 이상해서 남편이 자는 동안 카톡을 확인했어요..

의심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연애때부터 금\*누나한테서 연락이 잦았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이름이 정유\*이었어요..) 넘 연락이 잦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동아리 누나라고 했어요.. 남편이 친구가 몇명 없고 본인 속 얘기를 잘 안하는 성격인데 그 누나와는 계속 자주 연락하길래.. 그래도 의지되는 누나인갑다 했었어요.. 결혼해서 같이 있을때도 종종 그 누나한테서 연락오는걸 봤구요.

카톡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그 누나가 선물한거였어요..

그렇게 카톡에 있는 둘의 대화를 확인해보니, 저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고 지냈더라구요. 저랑은 연애때부터 지금까지 온종일 연락 한번 안하는 날도 많았는데.. 내가 연락하면 읽씹하는게 기본이고, 본인이 할말 있을때만 먼저 연락했었는데.. 그 여자한테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았고, 심지어 먼저 연락한 날도 많더라구요! 근데 주말부부일때는 저랑 같이 있는 주말을, 합가한 이후로는 저녁을 피해서 연락을 했더라구요.. 그 여자가 저랑 함께 있는 시간을 알려달라며, 그 시간을 피하겠다고..

결혼 2년째부터 내용이 남아있어서 그 전 내용은 모르지만, 주말부부 기간 동안 종종 퇴근 후 그 여자 만나러 서울가거나 그 여자가 남편한테로 오거나.. 그렇게 저녁에 만나서 막차타고 헤어지거나 새벽에 헤어졌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남편은 쉬는 날에는 꼭 서울 시댁에 갔었는데, 이렇게 혼자 시댁을 간 날에는 항상 그 여자를 만나서 전국방방곡곡을 놀러 다녔더라구요. 당연히 당일치기는 아니었구요..

저랑 어딜 여행가면 여기 예전에 왔었는데 어디에 뭐가있고 뭘했고 등등 옛날 추억팔이 얘기를 항상 했는데, 이전 여자친구랑 오래 사겼으니 그 여친과의 추억이려니 했어요..

제가 가고싶다고 한 레스토랑은 그런델 왜가냐고 성질부리며 안가더니,

그 여자한테는 먼저 가자고해서 갔더라구요..

저랑은 무한리필 아니면 해장국집들만 갔었는데, 그 여자랑은 비싸고 좋은 음식점에 갔더라구요..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마다 그 여자 선물도 사왔더라구요. 저한테는 시어머니꺼 아님 회사동료들꺼라고 했는데ㅋ 심지어 저랑 같이 간 휴가에서 산 것도 그 여자 선물이었어요ㅡㅡ

그 여자한테 명품가방, 팔찌, 목걸이, 영양제, 두유, 향수, 원두 등등 다양하게 사줬더라구요..

연애때부터 지금까지 종종 선물받았다면서 본인이 즐겨입는 브랜드 옷들과 준명품 옷들, 고가의 패딩과 가방, 그리고 명품 지갑 등등을 받아와서 저한테 자랑을 했었어요.. 누가 준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업체에서 줬다며 얼버무렸구요ㅡㅡ 제가 계속 물어봐도 딴소리하고 말을 계속 돌려서 더 못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남편도 그 여자 만나 포천으로 2박3일 다녀왔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도 안한거였고..

=============================

여: 바쁨??ㅋ 오늘 야근 안하면 안될까?!ㅋ 내가 평택갈끼다ㅋㅋ

남: 언제 끝날지 답이 없어 ㅠㅠ

여: 오늘 꼭 보고싶엇는데ㅜ 깜놀시킬라 햇드만...  망햇다ㅋ

남: 끝나면 얼마나 걸릴지 ㅠㅠ

여: 간만에 기차타고 바람맞음 다시 집에가지뭐...ㅋ

남: 바람 맞출까 설마 ㅎㅎㅎ

      뭐 먹고싶어?!

여: 꼬기집 ㅋㅋ검색해놔~

남: 육회 먹을래?! 육회집인데 평택에서 유명해

     아님 고기 구워 먹는집?! 빅××× 가자 거긴 완전 미국이야 ㅎㅎ

(제가 가자고 한 음식점인데, 남편은 별로라며 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

여: 얼굴한번 보자~~ 보고싶다ㅋㅋㅋ

남: 나도 시간이 안나서 미치겠다 뭐 ㅠㅠ

     금욜은 연차내고 베트남 가기로 ㅋㅋㅋ

     커피 1키로~~~ ㅎㅎㅎㅎ 잘 들고 올께 ㅎㅎㅎ

     뭐 또 필요한거 없어?! ㅋㅋㅋ

여: 향수 다 떨어져가 ㅠ

남: 미리 사서 들고 가야겠구먼 ㅋㅋ (시어머니꺼라며 향수를 사왔어요ㅡㅡ)

남: 오늘은 칼퇴 해야징 ㅋ 줄라고 커피랑 향수랑 일본 스노우볼두 잘 챙겨둠 ㅋㅋㅋ

여: ..... 오늘 볼래?!ㅋ

남: 그롤까?! ㅋ

여: 간만에 기분좋앗음ㅋㅋ (새벽 5시 반)

남: ㅇㅇ 조심히 들어가~

---------------------------------------

남: ㅡㅜ 보톡스 맞음... 아파 ㅋㅋ 이갈이땜에

여: 이갈이 왜 나만 못듣지?! ㅋㅋㅋ

      내 귀가 이상한가?! 난 왜 안들리지ㅋㅋㅋ

---------------------------------------

(지난달 5월 연휴)

여: 오늘 약속없음  볼까?! ㅋㅋ

남: 그려그려 ㅎㅎ

여: 아~~  그람 오디 가고싶당ㅎㅎ

남: 어디?!

여: 검색햇더니  포천나오더라ㅋㅋ 깊은산속 한적한곳 햇더니  ㅋㅋㅋ

남: ㅇㅇ 거기 조용하고 좋지 ㅎㅎ

여: 거기 갈까??

남: 그롤까낭?! 근데 지금 가면 너무 안 늦나?!

여: 그럼 설에서 밥먹을까?? 시간이 아깝다 서울에서 보내긴...

남: 그건 그래 ㅋ

여: 너랑 다 갔더라고~~~

남: ㅎㅎㅎ 포천이면 얼마나 걸리나

여: 한 2시간??

남: 가면 오밤중인데..ㅋ 뭘 할 수 있을까?! 늦어도 아쉬우니 뭐라도?!

     고민 되네..ㅡㅜ 미리 준비 할껄..ㅜㅠ

여: 고민해봐~~ 시간 많으니ㅋ

남: 무슨 시간이 많아?! 지금도 째깍째깍 가는 중인데..ㅋ 일단 나갈까?! 포천 가?!

      방이 있을라나?! 그게 걱정이지 머 ㅋ

여: 없음 ...  다시 설오지뭐 ㅋ

남: ㅋㅋㅋㅋ 머라도 있겠지 머 ㅋ 짐을 좀 싸서 가야하나?! ㅋ 1박?! 2박?!

여: 대충 담어~~ ㅋ

남: ㅎㅎㅎ 나 대충 준비 함 ㅋ

여: 나둥ㅋ 조심해서 와~~  집근처 카페 알지?

(이틀 뒤 오전 10시 반)

남: 집 도착 ㅎㅎㅎ

여: 너 덕분에 이쁜곳 많이가서 좋았어ㅎㅎ

남: 나두 ㅎㅎ 좋았어 ㅋ

=============================

이렇게 남편의 외도를 알고 정말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엄청 순진하게 생겼거든요. 다들 순딩이라고 인상 좋다고들 칭찬하거든요.

그 얼굴로 바람을 피고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해봤어요..

제 맘 추수리고 법률상담도 받은 후 남편한테 말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여자가 사준 케익을 먹겠다고 가져오길래 케익 누가 준거냐고 물었어요. 계속 그 형이 준거라고 하길래 그 형한테 전화해서 확인시켜 달라고하니 성질성질을 부리더라구요. 그런걸 왜 하냐고 내 성격이 이상하다며..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을 말했어요. 연휴때 그 여자랑 포천간것도 말했더니 당일치기도 못가냐고 오히려 성질을 부렸어요. 제가 2박 3일이 당일치기냐고 그 여자랑 갈때까지 간 사이 아니냐고, 같이 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 잤다! 그게뭐! 이러더라구요?!! 언제부터 만났냐고 물었더니, 저 만나기 전부터래요!!!

남편이 저 만나기 전, 10년을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 1주일 앞두고 파혼을 했어요. 파혼 이후에 만났대요.. 저랑은 파혼하고 1년 좀 지나 만났거든요.

저 만나기 전부터 그 여자를 만나서 저랑 연애때도

결혼해서도 쭈욱~ 7년째 만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한동안은 안만났었대요ㅋㅋ 연휴때 만난 것도 헤어지려고 마지막으로 만난거였대요. 그래서 지금은 다 정리한 사이래요.

헤어지려고 2박3일 포천여행을 가나요?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하고 생일에 명품 밸트와 떡케익을 선물하나요?!

제가 카톡을 확인한 그 날까지 그 여자랑 연락했더라구요..

제가 그 여자있으면서 왜 나랑 결혼했냐고하니, 제가 결혼하자고해서 했대요ㅋㅋ

사기결혼이라고 하니, 이미 다 정리한 사이인데 왜 이제와서 난리냐며 뭐가 사기결혼이냐며 도리어 화를 냈어요.

이러는 와중에도 사과도 잘못했다고도 말을 안하길래, 나한테 사과 안하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미안' 한마디 하더라구요!!

정말 진심 1도 없이 잘못을 한건지, 뭘 잘못한건지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전 바람핀 남편이랑 같이 못사니 정리하자고 했어요. 근데 못 헤어지겠대요ㅋ 그 여자는 이미 정리했

다고 앞으로 잘하겠다며, 절 놓치기 싫다며ㅋㅋ

결혼 전, 서로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원룸건물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각자 소유의 아파트를 1채씩 가지고 있었구요.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혼자일때보다 대출금액이 적고 이자가 높아서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류상 정리할 것은 없었고 재산분할만 하면 됐어요.

남편한테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한테도 받아야겠다고,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받을까 남편이 줄래라고 물으니, 그 여자한테 연락하지 말라며 본인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끝까지 그 여자를 보호하더라구요ㅋㅋ

일요일까지 돈주고 짐정리해서 나가라고 했더니, (현재 집은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집입니다) 돈은 줄 수 있는데 못 나간대요. 시댁에 전화해서 그 여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일요일까지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어요.

다음날 제가 재산분할 계산해서 줬더니, 제 계산법

이 이상하다며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 용서해달라, 정말 다 끝났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거다, 미안하다..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ㅡㅡ 그것도 카톡으로;;

계속 이러면 법적으로 하겠다, 회사에도 까발리고 그 여자도 찾아갈거다라고 하니, 그제서야 제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면서 돈을 하나씩 따지더군요ㅡㅡ

전 건물에서 나온 월세수익을 한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그 수익은 대출이랑 유지비에 다 들어가서 없다며 못 준다고, 제 명의 아파트 잔금 치룰때 본인 돈 들어간 것과 지금 사는 아파트 계약금은 본인이 냈다며 그 돈을 빼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에게 남은 건 원룸건물 살때 투자금과 위자료 4천뿐이었습니다ㅡㅡ

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기에 위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함께 공증을 받으러 갔어요. 공증도 제가 받자고 했으니 수수료를 저한테 내라고 하더군요.

근데 공증받을 때 공증금액의 3/4을 주더라구요? 이틀만에 어떻게 그 큰돈을 마련한건지.. 저 몰래 딴주

머니라도 차고 있었던 걸까요?

공증받고 나와 헤어지기 전에 주말동안 짐빼서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생활할게 없으니 생필품을 가져가도 되냐고 묻길래, 가져가라고 했어요. 남편 물건도 다 가져가라고 남은건 다 버리겠다고 했더니, 버리지 말라며 버리기 전에 카톡으로 사진 보내서 버려도 되는지 물어봐달라고 하더군요ㅋ

그리고 일요일에 집에 와보니, 정말 싹~다 가져갔더군요!!

그릇, 수저, 본인꺼 요리도구, 각종 양념, 칫솔, 치약, 비누, 휴지, 샴푸, 세제, 욕실/거실 슬리퍼, 욕실 발매트, 수영복, 영양제, 본인이 선물받은 술, 안주, 와인 오프너, 냉동실에 얼려둔 그 여자한테 받은 떡케익까지!!! ㅋㅋㅋ

이걸보고 더 피가 솟구쳤습니다..

정말 이 날만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갔더라구요ㅋㅋ

전 사실 본인이 잘못했고 미안하니, 본인 옷가지들과 중요 물건 등만 챙겨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온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다 가져갈 줄 몰랐어요ㅡㅡ

시댁에서도 제가 전화한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ㅋ 제가 아무리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랑 계속 살도록 하고팠으면 저한테 어떻게든 연락해서 어르고 달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릴때도 생각보다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구요.. 이미 알고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자 있는거 몰랐냐고.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끝까지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시냐고 왜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냐고 했더니, 무슨 말을 하겠냐면서 결국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안하시더라구요ㅋㅋ

저희 부모님도 남편과 연락이 안되니 시댁에 연락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은 1도 하지 않고 그저 죄인이라 할 말이 없다고만 하셨대요ㅋㅋ

보통의 사람이라면 먼저 사과부터하지 않나요?!ㅋㅋ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헤어진 그날까지 저를 속였습니다..

전 남편한테 미련 1도 없어요!!

다만, 제가 당한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남편은 잘못한걸 알기나 하는건지,

뭐가 당당해서 제대로 사과 한번 안하는건지,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저만 고통받고 힘들어야 하는지,

고작 제 투자금 회수와 위자료 4천밖에 보상을 못 받는건지,,,

전 남편 외도 사실을 안 이후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속 식은땀 나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착하디 착한 사람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라도해서 사람들에게 남편의 실체를 알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밖에 없다는게 너무 슬퍼요..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공증금액의 1/4을 빨리 받아서 남편과 인연을 끊고 싶어요..